



한림대 의예 합격!

강남대성학원 자연 28반 성치훈

안녕하세요, 강남대성 자연 28반에서 재수해서 한림대 의예에 합격한 성치훈이라고 합니다.

<재도전을 결심하게 된 계기>

저는 고등학교를 다닐 때 학생부와 내신 관리를 거의 하지 않고 정시 공부에 집중했습니다. 따로 학원도 다니지 않고 제 신념에 갇혀 매일같이 기출문제만 반복해서 봤습니다. 고3이 되었을 때는 학교 수업시간 대부분이 자습시간으로 바뀌었고 6시 30분 즈음 일어나 새벽 1시 정도까지 졸지 않고 눈을 부릅뜨고 자습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특성상 3년 전교생 기숙사였고, 교실과 기숙사 거리가 2,3분 정도 거리였기 때문에 버리는 시간도 없이 온전히 수능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수능 준비를 했음에도 수능 결과는 절망적이었습니다. 몇 년간 수능 하나만을 바라보며 열심히 공부했고, 나름 확신을 갖고 나만의 공부방식을 따랐는데 망했습니다. 몇 년간 수능만 바라보고 공부한 나의 점수가 이 정도로 낮다는 것에 어이가 없었고, 아무 고민 없이 재수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강남대성학원을 선택한 이유>

저의 고등학교는 재수를 결정한 친구들이 워낙 많았고, 수능 이후 학교 기숙사에 남아서 생활할 때 재수를 성공한 선배들이 찾아와 강연 비슷하게 여러 조언들을 남겨주었습니다. “선행반은 일찍 지칠 수 있다.”, “기숙학원과 정규반은 사람마다 달라서 성향에 맞추어 골라야 한다.” 등의 조언이었습니다. 3년 기숙 고등학교에 살면서 기숙학원이 맞지 않겠다고 생각했고, 수능 이후 너무 지쳐있었기 때문에 선행반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정규반 중 강남대성 정규반을 선택한 이유는 긴 수업시간 때문이었습니다. 고3 생활 대부분을 자습으로 보냈기 때문에 생활 패턴을 완전히 바꿔보고 싶었습니다. 갖고 있던 이상한 신념을 버리고 많은 수업을 들으며 자습 때 활용해 무의미한 자습이 없기를 바라며 강남대성을 선택하였습니다.

<학습방법>

#저는 현역 때 하던 모든 것을 바꾸려 노력했습니다.

5시간 자던 것을 8시간 수면으로 늘렸습니다. 현역 때는 일주일 내내 전부 성실히 임하던 자습을 재수할 때는 주말 오전은 온전히 쉬었습니다. 학사 생활을 했었는데 주말 오전에는 혼자 주변 산책을 다니기도 하고, 헬스장에 가서 운동도 하고, 학사에서 혼자 유튜브를 보며 그림 그리기도 배워보고, 책도 읽는 등 취미를 즐겼습니다. 물론 공부법을 변화시킨 것도 크겠지만 공부시간을 오히려 줄였음에도 성적은 크게 올랐고, 수면시간 증가와 여러 취미생활로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스트레스 감소는 중학생 때부터 있던 흰머리가 전부 검은 머리로 바뀌어서 크게 체감이 되었습니다.

#저는 자신에게 맞는 공부법을 찾는 것이 재수 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현역 때 하던 공부법을 완전히 바꾸진 않더라도 수정 및 조정의 과정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신에게 맞는 공부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우선 노력한 만큼 실력이 오른다는 점입니다.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고 얼마 지나지 않아 대부분 과목의 공부법을 찾을 수 있었는데 공부법을 찾았다고 생각한 이유가 자습을 할 때마다 실력이 증가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후 시간만 주어진다면 수능 만점도 가능할 것이라는 자신감이 생겼고, 쉬는시간과 점심시간, 저녁시간을 전부 자습에 활용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장점은 슬럼프가 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슬럼프는 공부를 해도 늘지 않고, 막연한 두려움으로 공부가 손에 잡히지 않게 되는 상황입니다. 재수 초기에 가장 두려웠던 것은 4년간 수능 공부에만 전념했는데 만약 수능에 실패한다면 사회 어느 곳에서도 수능 공부만 한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공부법 중 특히 국어 공부법을 찾고, 비문학을 읽는 실력이 계속 오르면서 대학에 가서 다양한 논문을 읽고 이해하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학을 가더라도 상관없이 4년간의 노력이 헛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고, 실력이 계속 늘어나는 것을 즐기며 슬럼프 없이 재수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몇몇 고등학교 친구들도 그랬던 것 같고, 저도 그랬고 자기 공부법에 대한 확신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재수할 때는 이 확신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했고, 대성학원 선생님들의 조언을 토대로 공부법을 조정했습니다. 대성학원 선생님들의 조언은 재수를 하면서 이 학원을 다니길 잘했다고 생각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의 공부에 대한 조언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모범생이 되기 위한 방법들이었던 것 같고, 대성학원 선생님들의 조언은 당장 나의 공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언이었습니다. 또 한 반에 들어오시는 선생님이 워낙 많아서 몇몇 조언에 대한 맹신 없이 다양한 조언을 들었고, 공부법의 가이드라인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과목별로 단권화를 하는 게 좋을 것이다” “문제 거르지 마라” “아인슈타인이 말하기를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증세이다.’ 그러니 같은 문제만 풀지 마라” “수능 직전까지 실력은 오른다” 등의 조언은 현역 때의 잘못된 습관들을 바로잡을 수 있게 해주었고, 나름 빠르게 저에게 맞는 공부법을 찾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저는 화1 3등급입니다. 6, 9월 평가원은 전부 50이었습니다. 그만큼 수능은 변수가 많은 시험입니다. 재수생활 1년을 수능에 전부 쏟아붓는 것은 추천하지 않아요. 나름의 여유를 찾고 즐기시길 바랍니다. 지금 다시 재수생활로 돌아가라고 해도 저는 크게 거부감이 들지는 않습니다. 불안감은 있었지만 즐거움도 많았습니다. 실력도 오르며 스트레스도 적게 받을 수 있는 자신만의 재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공부법과 생활방식을 찾아 성공하시길 바랍니다.